

3. 삶을 계획하기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 위로하고, 섬길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 실천계획을 세워봅시다.


4.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헌신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사용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V. 하가다

-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② 매일 반복합니다.
- ③ 집중해서 합니다. ④ 믿음으로 합니다.
- ⑤ 단순하게 합니다.

(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 암송보다는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 3:5]

<가정예배 순서지>
날짜: 5월 29일

부르심에 순종하기

◆ 모임 순서

- 마음열기 : 지난주를 돌아보며 나누기
- 찬 양 : 찬송 323장
- 성경읽기 : 출 3:1-12 (구약 84면)
- 말씀나눔 :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 삶에적용 : 그러면 나는?
- 기 도 : 합심기도
- 주기도문



0. 본문 배경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봅니다(1-2절). 나무에 가까이 다가간 모세는 불꽃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히네니’(Hineni)로, ‘제가 여기 있으니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창 22:1).

하나님은 모세에게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5절). 고대 중동에서는 집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손님을 초청하면 휴먼지로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현대의 표현입니다. 손님은 이 현대에 응하려면 주인의 집이 깨끗한 곳을 인식하고 존중하여 그에 따라 신발을 벗으며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초청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존경과 경외로 얼굴까지 가립니다(6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며,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십니다(7-10절). 모세는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심으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11-12절).

1. 말씀 관찰

1) 하나님은 왜 모세를 부르셨나요? (7-10절)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장인의 양 떼를 치고 있던 모세는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는 삽시간에 사라지는데, 한 불붙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가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4절).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7절).

하나님은 자녀의 아픔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자녀의 고통을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통과 아픔에서 건질 사명자를 보내십니다.

2)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11절)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며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는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11절). 모세는 한때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애굽 사람을 때려죽일 정도로 의기양양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광야에서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그날 이후로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40년을 살다 보니 패기와 자신감은 온데간데없는 마른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12절).

2. 말씀 적용

1)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볼 때, 가장 마음 아프실 곳은 어디일까요? 함께 나누어봅시다.

2)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변명하는 사람인가요?